

## 아이를 어르는 동작

단원명	4. 함께 나누며	교과서	3학년 66~67쪽
제재명	자장가	지도서	3학년 110~111쪽

### ▶ 아이를 어르는 동작

아이를 어르는 동작은 원래 ‘단동치기 십계훈’에서 유래하였다. 단동치기(檀童治基)란 단군이 돌이 되지 않은 어린 자손들을 가르치던 열 가지 규칙이었는데 지금은 아기들을 달래거나 놀이를 할 때 많이 사용하고 있다.

#### 1. 자장자장(自獎自獎)

아기를 재울 때 가슴을 토닥이며 아기에게 들려주는 말로, ‘자장자장’ 말의 뜻은 곱게 잠을 자듯이 곱고 자연스럽게 자라고 튼튼하게 자라 달라는 뜻이다.

#### 2. 섬마섬마 용타(瞻摩瞻摩 廉咤)

아기를 서 보게 하여 자립심과 자활성을 심어주는 것으로, ‘섬마섬마’의 내용은 몸을 연마하면 넉넉함이 있다는 뜻이며 ‘용타’라는 말은 사람으로서 땅 위에 서게 된 일은 떳떳하고 자랑스러운 일이니 자신이 땅 위에 두 발로 서서 머리를 하늘을 향하여 둔 것은 만물의 영장이고 자랑이니 매사에 떳떳하게 살라는 내용의 훈계였다.

#### 3. 침침(지암, 指唵)

아기와 마주 앉아 아기에게 들려주며 행동을 지시하는 말로, 아기의 두 손을 쥐었다 했다 하라는 지시어이다. 이 말의 뜻은 다섯 손가락은 오행의 근본이니 만물의 근원이 되는 오행을 모으고 쥐며 힘있게 가져서 바른 사람, 알찬 사람이 되라는 뜻이며, 아기 손의 동작 운동에서는 손의 힘이 오르고 장(腸)과 심(心)의 활성을 돋는 운동법이라 할 수 있다.

#### 4. 도리도리(道理 道理)

아기와 마주 앉아서 아기의 머리를 좌우로 저어보게 하며 들려주는 말로, 사람은 짐승과 달리 먹는 데나 물질에만 집착하지 말고 머리를 이리 저리로 돌리면서 인간의 도리가 있게 살아야 한다는 뜻이다.

#### 5. 곤지곤지(昆持昆持)

아기와 마주 앉아서 아기에게 들려주는 행동 지시어로서, 아기가 왼손을 폐고 오른손을 주먹을 쥔 상태에서 집게손가락을 폐서 구령에 맞추어 왼손 손바닥의 가운데를 댔다 떼었다 하며 신체 운동을 하게 하는 것이다. 곤지의 뜻은 가장 우수하고 좋은 것과 참다운 것을 하라는 것이다.

#### 6. 짹짜꿍(作作窮, 作九宮)

아기와 마주 보고 하는 말로서 아기는 이 말에 맞춰서 두 손을 폐고 손뼉을 치게 한다. 이때의 아기에게는 신체의 여러 가지 운동이 되고 아기에게 들려주는 말의 뜻은 사람은 모든 일을 만들어 하게 되어 있으니 넓고 길게 생각하고 판단하여 시행하며 단번에 크게 되려고 하지 말고 점차 성숙해져야 한다는 뜻이다.

#### 7. 질라래비훨훨(질나비훨훨)

아기를 업어줄 때 아기를 업은 사람이 업혀 있는 아기의 엉덩이를 토닥거리며 하는 말로, 우리 아기에게는 어떠한 질고도 병마도 오지 말고 모두 훨훨 떠나 날아가 버리라는 뜻으로 하는 말이다.

출처 장은경, “전통적인 육아 음악에 관한 연구: 아이 어르는 소리와 자장가를 중심으로”, 용인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2006, 59~62쪽.

## ‘마법사의 제자’ 악곡 해설

단원명	4. 함께 나누며	교과서	3학년 74~75쪽
제재명	마법사의 제자	지도서	3학년 118~119쪽

### 1. 뒤카(Dukas, Paul Abraham / 1865~1935)



프랑스의 작곡가 겸 교수이자 평론가. 파리 음악원, 에콜 노르말 쉬페리외르에서 교편을 잡고, 평론 활동 외에 여러 작곡가의 작품을 교정, 편곡하였다. 그는 70년의 생애 동안에 13곡의 작품이 출판 연주되었을 뿐이었는데 그 이유는 항상 꼼꼼하고 세심한 작곡 태도와 자신에 대한 엄격함 때문이었다. 그러나 이러한 것으로 인해 개성적인 작곡 기법과 논리적인 작품, 치밀한 구성으로 독자적인 지위를 차지하며 평론, 교육 등 다방면에 걸쳐 뛰어난 업적을 남겼으며 현대 프랑스 음악에 현저하게 공헌하였다. 대표작으로는 ‘마법사의 제자’, 오페라 ‘아리안과 푸른 수염’, 발레 음악 ‘라 페리’ 등이 있다.

### 2. 마법사의 제자(The Sorcerer's Apprentice)

뒤카는 1767년에 쓴 요한 볼프강 폰 고테(Johann Wolfgang Von Goethe, 1749~1832)의 시 ‘Der Zauberlehrling’을 읽고 1897년에 단일 악장의 묘사적인 교향시를 만들었다. 그렇게 탄생한 표제 음악(program music) ‘마법사의 제자’는 그의 출세작일 뿐만 아니라 근대 프랑스 관현악곡 중 손꼽히는 걸작으로 탁월한 아이디어와 정묘한 구성 및 색채적 관현악법과 어우러져 훌륭한 스케르초 형식을 자랑한다. 이후 1940년에 월트 디즈니(Walt Disney, 1901~1966)에 의해 “판타지아(Fantasia)”로 제작되었고, 거기에서 뒤카의 이 곡은 애니메이션과 음악의 절묘한 통합으로 새롭게 선보이게 되었다. 특히 “판타지아”의 ‘마법사의 제자’에 담긴 음악 요소들을 시각적으로 잘 재현하고 있으며 화면과 음악의 일치됨을 보여준다.

### 3. 줄거리

어느 날 마법사인 스승이 외출하고 없을 때 그 제자는 어깨너머로 배운 것으로 주문을 시도하여 빗자루에 마법을 걸고 물긷는 일을 시킨다. 빗자루는 일하기 시작하고 제자는 우쭐거리며 뽑내지만, 마법을 푸는 주문을 몰라 빗자루는 물긷기를 멈추지 않는다. 제자는 자포자기가 되어 빗자루를 내려치지만, 두 개로 잘린 빗자루는 두 자루로 물을 나르게 되어 집 안에 큰 홍수가 난다. 스승이 돌아와 주문을 외우니 물은 순식간에 빠져나간다.

### 4. ‘마법사의 제자’의 주요 선율

‘마법사의 제자’는 고테의 시 내용을 묘사한 표제 음악으로, 서주, 스케르초, 코다의 세 부분으로 이루어져 있다. 각 부분의 주요 선율은 다음과 같다.

출처 편집부, “최신 명곡 해설”, 삼호뮤직, 2012, 232쪽, 366~367쪽.

(1) ‘서주’의 바이올린 선율: 마법사가 신비스러운 분위기를 내뿜으며 마법을 부리는 모습을 바이올린의 여린 선율이 표현한다. 이 주제 선율은 마법사 제자의 행동을 표현할 때에도 다양한 형태로 반복해서 등장한다.

**Assez lent ♩ = 90 à 103**

(2) ‘스케르초’의 바순 선율: 마법에 걸린 빗자루가 움직이는 모습을 바순이 익살스럽고도 절도 있게 표현한다.

a3 Soli

*mf*

(3) ‘코다’의 클라리넷 선율: 여리고 부드러운 피아니시모의 클라리넷 솔로가 바순의 스케르초 선율을 새로운 분위기로 모방하고, 마지막으로 모든 악기가 포르티시모로 다 함께 연주하며 마친다.

*en retenant un peu*

*pp*

*8va*

*perdendo*

*Vif*

*ff*

## 음악회 시나리오 예시

단원명	4. 함께 나누며	교과서	3학년 76~77쪽
제재명	작은 음악회	지도서	3학년 120~121쪽

### ▶ 학급 음악회 시나리오 예시

출연순서	사회자 대사	비고
사회자	<p>A: 어느덧 추운 겨울은 가고 만물이 소생하는 활기찬 봄이 다가왔네요. 우리 3학년 ○반 친구들이 한 해를 마무리하고 새해를 맞이하여 그동안 열심히 갈고닦은 실력으로 작은 음악회를 준비하였습니다.</p> <p>B: 바쁘신 중에도 저희 작은 음악회를 보러 와 주신 아버님. 어머님을 비롯한 가족분들, 그리고 지도해 주신 선생님께 진심으로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3학년 ○반 작은 음악회를 시작하겠습니다.</p> <p>(다같이 박수)</p> <p>A: 첫 번째 순서는 리코더 어울림 연주입니다. 어울림 연주는 서로 다른 곡을 연주하며 아름다운 소리의 어울림을 만들어가는 연주인데요. 김○○과정○○가 '모든 새가 벌써 다 와 있네'와 '작은 별' 악곡으로 준비했습니다.</p> <p>B: 두 사람이 만드는 아름다운 화음을 세계로 함께 떠나 볼까요? 많은 박수로 격려해 주시기 바랍니다.</p>	
김○○, 정○○	'모든 새들이 벌써 다 와 있네'+작은 별'(리코더 어울림 연주)	피아노 반주 백○○
사회자	<p>B: 두 사람이 만드는 화음이 정말 멋진 리코더 2중주였습니다.</p> <p>A: 서로 다른 곡이지만 마치 하나의 곡처럼 아름다운 화음을 만들었네요.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p> <p>B: 다음 순서는 목소리가 예쁜 조○○의 독창입니다.</p> <p>A: 노래할 곡명은 '송사탕'입니다. 우레와 같은 박수로 맞아 주세요.</p>	
조○○	'송사탕'(독창)	피아노 반주 신○○
	<p>A: 한 마리의 꾀꼬리가 온 줄 알았습니다. 혼자서도 씩씩하게 잘 부른 조○○에게 더 큰 박수로 격려해 주세요.</p> <p>(다같이 박수)</p> <p>B: 다음은 우리 음악의 멋과 향기를 표현할 무대가 될 것 같습니다.</p> <p>A: 뜨거운 분위기를 계속해서 이어 볼까요? 이○○과장○○의 '꼭꼭 숨어라'입니다.</p> <p>B: 장구 반주를 하며 노래를 부른다고 합니다. 정말 기대되는데요. 큰 박수로 맞아 주시기 바랍니다.</p>	
이○○, 장○○	'꼭꼭 숨어라'(노래+장구 반주)	
	<p>B: 멋진 무대였습니다. 장구로 반주하며 노래 부르는 게 쉽지 않은데요. 무려 2개월을 연습했다고 하네요.</p> <p>A: 굉장히 한데요. 잊지 못할 감동의 무대였습니다.</p> <p>B: 다음은 아쉽지만 마지막 순서입니다. 우리 반 친구들의 따뜻한 마음을 담아 함께 불러 보는 '작은 세상'입니다.</p> <p>A: 제목은 작은 세상이지만 우리의 마음을 담아 사랑이 넘치는 커다란 세상을 꿈꾸며 함께 불러 보겠습니다. 힘찬 박수로 맞이해 주시기 바랍니다.</p>	
전체	'작은 세상'(합창)	피아노 반주 송○○
사회자	<p>A: 노랫말처럼 기쁨과 슬픔을 함께 나누며 한 해를 보낸 우리 반이었습니다.</p> <p>B: 그렇습니다. 어느덧 연주회를 마칠 시간인데요. 저희를 지도해 주신 선생님과 자리를 빛내 주신 가족분들께 다시 한번 감사의 인사 드립니다.</p> <p>A, B: 감사합니다.</p>	